

제3호 1996년 4월호

- 발행처 / 복음음반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송파구 오금동 94-3 성진 B/D
Tel 408-6959 Fax 430-4353
- 발행인 / 조 관 호 (Barnabas)
- 편집인 / 정 성 준 (David)
- 정기간행물등록 / 1996.2.21 등록번호 마2540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계 7:9)



Audio Recordings Mission

ASSOCIATED WITH GOSPEL RECORDINGS

복 음 음 반 선 교 회

ARM은 Gospel Recordings, LRI와 연합하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의 부족어로 된 음반을 만들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목차

- 조이의 기쁨행전
- 미전도종족을 위한 음반사역
-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과 관련된 ARM의 사역
- 제이오 텍 - 미전도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업
- 선교 현장 간증 - 어둠에서 빛으로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중국에서 온 편지
- 기도요청
- 광고

곤경 속에 빠졌을 때



조이 리더호프
Gospel Recordings
설립자

“부러진 한쪽 날개를 퍼덕거리며
한 마리 새가 앉아 노래부른다.
날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정원에 있는 앵무새가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질랜드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병도 심한 데다가 신경증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 그 친구는 언제나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작지만 기쁨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될만한 것을 생각해 냈다. 앵무새를 훈련시켜 “기뻐해, 기뻐해, 도라!”라고 말하도록 한 것이다. 때때로 기분이 즐겁지 않을 때면 그 앵무새는 이렇게 재잘거린다.

“도라, 도라, 어디 있어? 기뻐해, 도라, 기뻐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일깨우는 말씀을 해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운을 내라.’

1944년 앤과 내가 멕시코에 갔었는데 녹음 선교 여행에는 치명적인 어떤 사태가 벌어졌고 이전에 했던 기도의 기가 막힌 응답의 시작으로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말을 우리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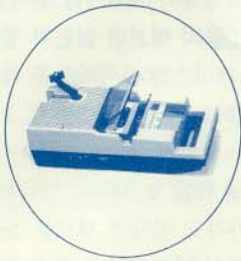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 서로 기뻐하라고 권면해 주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였다.

“조이, 내 지갑을 잃어버렸어……. 기뻐하자.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어……. 기뻐하자!
세계대전 때문에 멕시코에서 더 지체하게 되었어…….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선교 여행의 성과로 많은 여러 부족들이 음반에서 되풀이 하여 흘러 나오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당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연막과 소음과 곤경 속에서 찬양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이 계신 청명한 하늘 위로 높이 솟아 오르라!

명심하라.
곤경 속에 빠졌을 때에도 크게 기뻐하는 것을!

미전도 종족을 위한 음반사역



Section II 카세트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

카세트를 사용하는 데는 수많은 장점과 유익이 있다. 다음은 카세트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고려사항이다.

A. 장점

1. 문맹종족에게 접근하기에 유익하다.

카세트의 가장 중요한 유익 중 하나는 읽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문서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종족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2. 카세트가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카세트와 재생기를 가지고 문맹자들과 반문맹자들이 교사가 없어도 배울 수 있다. 카세트가 성경교사가 되는 것이다.

3.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반복가능하다.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완전히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은 배움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많은 문화에서는 반복이 사회 활동의 역동적인 부분이다. 아무도 중요한 것을 단지 한 번만 말하지 않는다.

- 중요한 요지를 잡을 때까지 똑같은 것을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앉아서 듣는 것은 종족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크리스찬들이 사용했던 "사도신경"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이나 교리의 한 부분을 노래나 시로 배우고 그것을 반복해 암송했던 것이다.

4. 카세트는 듣는 사람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메시지는 명확한 언어로 들려진다. 왜냐하면 카세트는 그들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녹음되기 때문이다. 카세트가 적절히 준비되면 우리는 그 가르침이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인지 확인한다. 이것은 목사나 교회 사역자들이 그들의 말로 잘 읽지 못하여 모임에서 외치는 내용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 라디오, 비디오, 텔레비전,
필름이나 서적으로는
하지 않는가?
음반 매체는
많은 현대의 기술적
매체들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선교의 과업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생명력있고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매체들이나 사역들이
서로 상호 보충하고
보완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음반매체가 수많은 유효한
접근방식중에 하나이며
독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 카세트 재생기는 쉽게 준비되고 사용될 수 있다.

오늘날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의 마을은 적어도 한 개의 카세트 재생기쯤은 가지고 있으며 점점 더 일반화될 것이다. 또한 비교적 사용하기 쉽다.

6. 특수한 청취자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카세트는 '한정적 방송(Narrow cast)' 도구로서 청취자의 특별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또한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면이 도입될 수 있다.

7. 카세트는 사용하기에 경제적이다.

카세트는 비교적 저렴하며 어떤 크리스찬 단체에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가격으로 다량의 방언과 언어 음반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8.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

만일 카세트가 재미있고 알아듣기가 더 쉬우면 쉬울수록 단지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다. 사람들은 카세트를 들으면서 일을 하거나 요리할 수 있다. 도시의 바쁜 목사들은 카세트를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청취자는 언제 어디서 듣는 것이 가장 좋은지 선택할 수 있다.

9. 카세트는 많은 장소에까지 미칠 수 있다.

카세트는 사실상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될 수 있다.

진료소	피난민촌	나병요양소교회
교도소 책방	양육사역	형만사역
학교	시장	방송
가정	노방전도	그림성경공부

카세트는 선교사나 크리스찬이 전혀 없는 지역이나 접근 제한 국가에 보낼 수 있다.

10. 카세트는 가르침과 양육의 좋은 도구이다.

훈련되지 않은 현지 크리스찬 사역자들은 카세트를 사용함으로써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 카세트를

전도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성경학교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학적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카세트를 잠시 끄고 청중이 메세지를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더 첨가할 자신들의 의견이 없는지 질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 사역자들은 확신을 갖고 말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11. 카세트로 찬송가와 찬양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이 만일 카세트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노래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만일 테이프의 노래가 올바르면 사람들도 올바르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카세트에 노래를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12. 메세지는 그림(시청각 자료)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카세트와 그림을 함께 사용한다면 시장과 같은 장소에서 훨씬 더 주목을 끌수있다. (GOOD NEWS이나 LOOK, LISTEN & LIVE—복음음반선교회에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 개발한 그림성경—와 같은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라.)

만일 당신이 그림을 그릴 줄 알거나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카세트에 당신이 만든 이야기를 녹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집단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특히 서구식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토속적인 스타일을 사용해야 한다.)

13. 카세트는 소그룹에 좋다.

카세트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하나, 둘 혹은 그 이상되는 모임에서 쓰일 수 있다.

당신은 교회 건물이나 많은 회중이 필요없다. 만일 소그룹과 같이 쓰인다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토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B. 단점과 그밖의 고려사항

1. 카세트가 개인적 복음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카세트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비개인적" 도구라

는 것이다. 단지 카세트만 듣는 사람들은 메시지에 관해 질문할 수 없다.

카세트는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누군가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카세트는 결코 개인적 접촉이나 복음증거를 대체할 수 없으며 부수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 카세트는 믿는자의 증거에 의해 뒷받쳐지지 않는다면 “비개인적”이다.

2. 카세트 사역 운영비용

카세트 사역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드는 매체라 할 지라도 다음과 같이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 카세트 재생 기계

[b] 건전지 문제(Gospel/Language Recordings International의 수동식 재생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c] 카세트 테이프

[d] 유지비

[e] 녹음, 복사에 쓰이는 비싼 장비

[f] 현지 수입세

전도여행이나 가르침에 카세트를 사용하는 데는 그다지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에 녹음, 제작을 위한 간단한 카세트 음반사역의 설치에는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적어도 여러 복사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본으로 쓸 수 있는 한 개의 좋은 테이프 녹음기(릴이나 마스터 카세트 용)가 필요하다. 원본으로 쓰는 카세트 또한 짜지는 않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싼 편이다.(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고)

3. 시간 위탁이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는 카세트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주일에 하루는 대본을 작성하는 날로 따로 정해놓고 카세트를 보내는 일, 카세트를 사용하는 사람

들의 재생기를 고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찬의 다른 종류의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카세트 사역은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도 없고 열매도 없다.

4. 음성재생기는 보수와 수리가 필요하다.

카세트 녹음/재생기 장비와 복사기는 계속적으로 보수와 청소가 필요하며 때때로 고장이 나기도 한다. 장비와 재생기가 사용되는 조건과 정도에 따라 수리빈도와 수명이 달라진다. 수리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SECTION III 어떤 종류의 카세트가 사용되는가?

다음은 카세트사역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다.

- 교회 모임의 녹음
- 성경 공부
- 특별한 필요를 위한 메시지-예를 들면 결혼 생활 가이드
- 간증
- 준비된 대본의 번역(예를 들면 Gospel Recordings의 4600여 개의 종족방언 음반)
- 성경 내용의 번역
- 찬양이나 음악 - 이것은 메시지 사이에 부드러운 다리를 놓아주며 메시지를 보완하거나 설명해준다.(주의 :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 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이야기는 드라마(독백), 두 사람(대화) 또는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드라마 - 드라마는 주목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많은 작업과 기술이 필요하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과 관련된 ARM의 사역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서기 2000년까지 종족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마다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기독교 21세기 운동 본부를 주축으로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단체, 교단,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여 시작된 세계적인 선교운동 프로젝트이다.

미국에서는 YWAM, 갈렙 프로젝트, 남침례교 선교부, OM, US선교센터, SIM, SIL, 국제선명회 등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 대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95년 GCOWE대회를 통해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지난 96년 1월 26일 미전도 종족입양에 관한 정책 회의에서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1.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의 국제총무인 루이스 부시에 의해 제안된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2000년까지의 지금까지의 전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경험, 자원, 정보를 동원해 11,000여개의 미전도 종족 중 우선 종족을 택하여 복음화하려는 5개년 전략적 계획이다.

선교학자들이 일치를 본 1700개 우선 종족 목록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10/40 창문지역 인구의 90%인 22억의 잃어버린 종족집단이다.

2.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목표 성취단계

- 1단계 최우선적으로 교회개혁이 필요한 종족 파악
- 2단계 전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
- 3단계 현장 조사 및 교회개혁 방법 준비
- 4단계 종족 프로파일 작성 및 종족 입양 촉진
- 5단계 최소 복음화 종족들을 위한 기도
- 6단계 각 종족들 가운데 교회 개혁
- 7단계 당신의 역할을 발견하라

3.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에 있어서 복음음반 사역의 중요성

1단계, 2단계 과정을 통하여 1700개의 우선 대상 종족을 선정하고 전세계 교회가 분담하여 종족을 입양한다. 또한 이에 대한 관심과 기도, 헌신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3단계에 필요한 것이 바로 효과적으

로 미전도 종족에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성경번역, 도시사역, 전파방송 사역, 문서사역, 현장 정탐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데 Gospel Recordings(복음음반선교회)는 기독교 21세기운동의 ACT(음반사역위원회: Audio Communication Track)의 기술적, 전략적 책임을 맡고 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우리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모든 족속들은 그들 가운데 역동적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말씀이 없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고자 할 때 우리는 몇가지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어떤 선교단체도 과업을 홀로 성취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전략이 바로 "음반을 통한 의사전달"(Audio Communication)방식이다. 이것은 주로 각 종족의 토속어로 된 오디오 음반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음반의 내용은 전도와, 성경구절, 제자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음반 의사전달 방식은 장벽을 극

말하는 전도자인 복음화반이나 카세트 테이프는 아직 복음화되지 않고 글자지는 없는 종족을 복음화시키는 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있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부족의 최초의 신자들 중에 일부를 제자양육이 가능한 도사나 인근 지역으로 초청하여 성경공부나 신학교육을 시킨 다음 다시 그 부족민들에게 보내어 교회개척을 시킬 때 그들 자신의 종족언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사역자가 배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한 종족이 자생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미전도 종족은 복음화 되었다고 말한다.

이 과정을 간단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 과정〉

1. 미전도 종족어로 복음음반, 카세트 테이프 제작 : GR
2. 복음음반, 카세트를 통해 복음전파 및 배포 : GR / 선교사 / 지역 교회
3. 최초의 헌신자 그룹의 기초적인 양육 : GR / 선교사 / 지역교회
4. 제자양육 프로그램 또는 신학교육 : 신학교 사역자를 통한 위임교육
5. 자기 종족에서의 교회개척 사역 : 선교사 / 지역교회

GR사역은 협력 사역을 필요로 한다. 처음 메시지를 복음화하는 사역과 초기 복음 음반 및 카세트 테이프 배포 및 복음전파 사역까지를 GR이 맡고 그 이후의 사역을 기존 선교사 및 인근 현지 교회에 인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1단계, 2단계에서 극심한 영적전쟁이 수행되며 능력대결의 현상이 빈번히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 인력들이 이러한 개척선교 지역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할 것이다.

A. 문맹장벽(Illiterate Barrier)

20대에 달하는 사람들이 읽을 줄을 모른다. 많은 종족들은 대부분 완전 문맹이다. 북미의 블랙톤 인디언 같은 종족들은 영어는 읽을 줄 알지만 단지 구어체로만 사용되고 있는 자신들의 토속어를 읽는 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문맹자들이 복음메세지를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될 때 이 장벽은 무너진다.

B. 언어 장벽(Language Barrier)

적어도 10,000개의 언어와 방언이 언어장벽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이 음반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될 때 무너지는 것이다.

C. 지역적 장벽(Geographic Barrier)

대부분의 산악대기에 사는 부족들은 선교사들에게조차도 거의 방문을 받지 않는 곳이다. 이런 장벽들은 그들에게 공급된 복음 카세트를 반복적으로 듣게될 때 크게 완화된다.

D. 편견 장벽(Precjudice Barrier)

외부에서 온 낯선 선교사들은 남방시코의 트리크 인디언들의 외면 마울에는 환영받지 못한다. 외부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 장벽은 선교사가 접근하기 이전에 그들의 토속 방언으로 된 복음카세트가 계절마다 이동하는 칠레 노동자들에게 의해 각 가정으로 전해짐으로써 깨뜨려진다.

E. 정치적 장벽(Political Barrier)

정치적 상황은 때론 선교사들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오디오 카세트는 제한하지 못한다.

F. 인적자원 장벽(Manpower Barrier)

오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 개의 카세트로 복사시킴으로써 인적자원 장벽을 이길 수 있게 한다. 오디오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크리스찬과 선교사들에게 유용하며 교회개척 실행전략(Preach church planting Strategy)을 제공한다. 복음음반은 선교사가 아직 말하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종족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세신자가 복음을 중

5. 음반 사역의 효과

선하족과 타이족과 같은 종족들에게 과연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종족들은 네발의 원두왕국에 산다. 10/40 창문지역의 다른 종족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원두교와 불교가 혼합된 정령신앙을 숭배한다. 그들의 언어에는 글자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도 없다. 이러한 경우의 해답은 전도로 오디오 카세트를 사용하는 전략이다.

GR은 Every Home For Christ와 카트만두의 현지 크리스찬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10,000명의 손하(SONHA)족이 살고있는 외딴 마을로 떠났다.

이전에 한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손하족 사람들의 손에 카세트가 들려졌다. 그들은 카세트에서 자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놀랐다. 처음으로 23명의 손하족 사람들이 주님을 그들 개인의 구세주로 명칭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살겠노라고 서약했다. 몇년 후 크리스찬은 60명으로 늘었다.

20,000명의 타이족(TAMI)을 방문한 팀은 단기전도여행 후 이렇게 보고했다.

“그런 마치 다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부분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듣기를 원했었지요. 사람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이 늦도록 복음카세트를 들으면서 서 있었습니. 한 나이드신 마을 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사실상 원두교인도 불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우리 모든 타미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6. 미전도종족복음화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

GR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명확한 복음의 말씀을 담은 음반을 그들 자신의 언어나 방언으로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Bote Majhi Recording Trip 을 마치고
정 아브라함 선교사

참으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러한 나라에 태어나는

불운한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아마 그것은

이들의 선조로부터

수천년 동안 지어온

우상숭배의

악 때문일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그 흙 속에서 뒹굴며 노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에

연민을 느낀다.

Bote majhi 의 한 여관(Lodge)에서 잠을 자고 이곳에 유일하게 있는 교회로 짐을 옮겼다. 첫날은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Lodge에서 잤으나 비교적 이 마을이 개방적이라는 현지인 리더의 말에 짐을 정리해서 옮기게 된 것이다. 오늘부터는 교회의 흠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잘 예정이다.

이곳은 네팔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평지인데다가 강을 끼고 있어서 꼭 한국의 남부지방의 평야지대 같았다. 겨울인데도 눈에 밀을 경작할 수 있어서 2모작 3모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도리어 이상할 정도였다.

이곳 Bote majhi 사람들은 대략 수천명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지를 못한다. 이들의 주거지는 완전한 흙탕집으로 방, 바닥 천장 그리고 벽이 모두 흙으로 도배가 되어졌다. 대부분의 집이 벽을 수수대로 엮어 붙이고 그 곳에 도배를 하였기 때문에 매우 어둡다. 창문이라고는 도배를 안 한 부분으로 약간의 빛과 바람을 통하게 할 뿐이다. 방안은 간신히 침대 한두 개씩 놓으면 그만일 정도의 규모이다. 이런 방이 보통 2개 정도 되는데 3대가 함께 사는 생활에서 간신이 칸막이 구실을 한다. 집에는 열고 닫는 문이 없다. 밖에서 바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미로 같이 문을 내었을 뿐 미닫이 문이 없는 것이다.

모든 연료는 나무를 사용하고 있고 전기라고는 있지만 전등하나도 밝힐 수 없는 만큼의 저용량이다. 전기불

의 밝기가 촛불 만큼도 못하니 말이다. 화장실을 얘기 한다는 것이 사치일 정도로 화장실을 갖춘 집이 거의 없다. 근처 Lodge 에서나 화장실을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이들은 때가 되면 아무데 가서나 일을 보기 때문에 길거리는 온통 사람×, 소×, 염소× 등 앞을 보고 걷지 않으면 엉락없이 밟기 십상이다. ×은 보이는데 화장지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왼손으로 닦는 모양이다. 그리고 흙이나 풀에 쓱쓱 문대서 닦고 나면 그만이다. 그래도 나는 이런 데서 실례하지 않은 특권을 받아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이곳에 비하면 카트만두는 천국이다. 처음 카트만두에 왔을 때 3-40년 전 심지어 조선시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는데 이곳에 오니 카트만두는 너무 친밀하게 느껴진다. 아마 이곳이 지구의 끝일 곳이다. 이곳보다 더 못한 곳이 이리안 자마나 소말리아 정도나 될까! 참으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러한 나라에 태어나는 불운한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아마 그것은 이들의 선조로부터 수천 년 동안 지어온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일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그 흙 속에서 뒹굴며 노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에 연민을 느낀다. 한국에도 불과 수십 년 전에 저 아이들보다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장본인이 바로 나 아닌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시간을 거꾸로 사는 것 같으니 말이다.

녹음은 다행히 그들의 말로 복음 메시지를 녹음할 두 명의 언어 조력

자(Language Helper)를 구하게 되었고 그들은 농한기라서 흔쾌히 허락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이라서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스튜디오로 사용할 집인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 벌써 동네 아이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꼭 모여들어 녹음의 치명적인 적인 소음을 제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민가와 동떨어진 논외의 원두막 밑에서 녹음하는 것이었다. 비교적 소음도 없고 바람이 약해 "돌아온 탕자(The Prodigal Son)"를 5시간에 걸쳐 녹음할 수 있었고 둘째날은 "두려워하십니까?(Fear or Not)"를 녹음하였다. 이날 우리는 두 개의 메세지를 시도하려다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어 스튜디오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Bote majhi언어로 복음성가를 그들의 말로 개사하여 이들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연습하게 하여 3곡을 녹음을 했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녹음이었다. 아마도 이들 언어로 불려지는 최초의 찬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녹음에 응해 주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더이상 녹음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그 다음날 2명의 언어조력자들을 데리고 카트만두로 돌아가기로 했다. 카트만두 사무실에서 4.5개의 메세지 녹음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조력자들도 흔쾌히 허락하여 우리는 카트만두로의 힘든 발걸음을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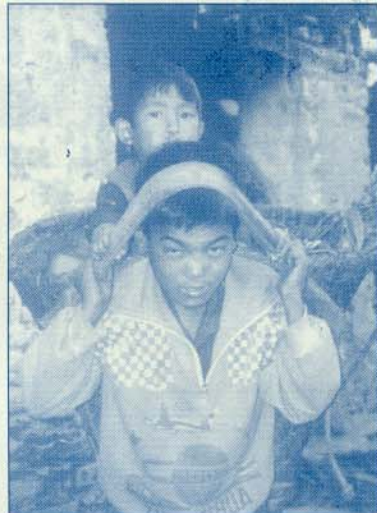
버스 안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추위에 떨며 카트만두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6시였다. 카트만두에 돌아와서 우리는 5개의 메세지(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은 누구신가 등등)를 더 녹음하여 60분 짜리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게 되었

다. 이 Recording의 과정을 통하여 2명의 언어조력자들이 완전히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 큰 수확 중의 하나였다.

이들은 카트만두를 떠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네팔의 Bote Majhi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그들 부족을 사랑했고, 그들 말로 처음 탄생하는 복음 메세지의 녹음자로서 앞으로 더욱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이 두 명의 청년들은 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돌아가자 마자 글을 배워 성경을 읽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할때 나는 이 Gospel Recordings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말로 최초의 복음의 메세지가 전해진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저 두명의 청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다.

* Bote majhi는 네팔 남부 지방으로써 인도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업은 농업이며 강에서 고기잡이를 한다. 그들 고유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4,000명 정도 되며 교회는 2년 전에 단 한 군데 현재 20~30명이 출석하고 있다. ✽



선교현장 간증 / 어둠에서 빛으로

웨다브(Wedabe)족속은 서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지역에 사는 모슬렘 유목민들이다. 우리는 수동식 "메신저" 축음기를 이 종족들 가운데 나눠주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카세트를 듣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사막으로부터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두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건물이 아닌 우리들의 음반에 의해 믿음의 양육을 받은 새로운 신자들이었다.

이렇게 믿게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웨다브(Wedabe)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 중 한 명을 500킬로나 떨어져 있는 현장 녹음 선교사를 데리러 보낸 것이다. 88명의 사람들이 첫번째 세례식 때 세례를 받고 42명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웨다브 족속들이 세상의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이슬람의 어둠의 세력과 속박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다.

짐바브웨(Zimbabwe)의 한 선교사로부터 온 이 메시지에 기뻐하자.

"전도자 대니얼이 우리가 복음음반선교회(Gospel Recordings)로부터 받은 수동식 축음기 중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는 그 복음 카세트를 갖고 6주 동안이나 모잠비크를 향해 여행을 했습니다. 트럭이나 기차, 때론 자전거를 빌어 타거나 걷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초청을 할 때마다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축음기는 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세트를 듣고 물려왔습니다. 대니얼은 이 카세트를 들은 대략 200여 명의 사람들을 위해 60개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총 합해서 12,000명! 그를 위해 수동식 축음기와 복음 카세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방글라데시의 차크(chak)부족에서 온 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소식에 주님을 찬양하자. 미얀마(옛 버마) 국경에 살고 있는 차크부족은 마음이 매우 완고한 족속이다. 한 전도자가 "메신저" 수동식 축음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 부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보

고 듣고 행하라(Look, Listen & Live)"라는 그림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족으로부터의 첫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자. 지금까지 단지 5명의 차크 부족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더 많은 수확을 위해 기도하자.

최근에 에디오피아에서 뉴질랜드의 고향으로 가는 한 선교사가 내게 말했다.

"나는 케파(keffa)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여러 명의 새신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들 고유의 언어로 그림 성경을 보면서 복음 테이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보고 듣고 행하라(Look, Listen & Live)" 그림 성경을 사용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는 전도여행에서 새로운 개종자들과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 고유의 말로 모든 부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서부 아프리카의 니제르공화국의 한 선교사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귀 선교회의 음반을 하우자, 타마자크, 풀풀디, 드제르마 등의 여러 언어종족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몇몇의 자매들이 건너와서 니아메이와 갈미에서 SIM과 함께 몇가지 언어를 녹음했습니다. 우리는 거의가 문맹인 이 종족들을 훈련하고 전도하기 위한 이러한 도구를 갖게 된 것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니제르 언어로 LLL 그림성경 시리즈를 더 갖고 올 다른 팀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케냐의 다른 선교사도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6개의 공립학교를 방문해서 "Good News" 그림성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 선교회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구원의 길을 설명한 결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귀 선교회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계속 동역합니다."

남부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수백 킬로미터 주위의 농촌지역 거주자들 사이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찰리라는 한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큰 포스터처럼 생긴 성경의 삽화와 수많은 언어로 된 본문의 테이프 녹음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책과 축음기에 익숙해지는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 일년 후 - 그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 수많은 씨앗들이 뿌러지고, 물이 주어졌으며 꽃이 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경외함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열심히 듣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찰리 주변에 몰려들어 거리에서 그를 못가게 붙잡고, 버스 정류소에서 그를 기다리며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눈이 열리고 빛이 임한 것입니다. 찰리는 방문해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여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듣기 위해 몰려듭니다. 문자 그대로 수백 명이 몰려들어 그들의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슬픔의 땅에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파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 홀로 이 영광을 받으소서!

서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는 이렇게 썼다.

"어떻게 이 풀라(FULA)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풀라 여인들은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성숙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음반선교회(Gospel Recordings)로부터 풀라어로 된 'Look, Listen & Live 그림성경'과 카세트 한 세트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참된 응답이었으며, 사람들이 카세트를 들을 때 성령님이 그들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보는 것은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





JEIO-TECH(제이오 텍)은 멀리 네팔에서 미전도 종족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 아브라함 선교사와 국내 PILOT PLANT의 첨병을 달리는 (주)제이오의 강득주 집사, 그리고 (주)제이오 텍의 김진익 집사, 이 세 사람이 국내에 좋은 실험 설비를 만들어 공급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회사이다.

JEIO TECH은 예수님(JESUS)의 J를 앞세우고 세사람의 E,I,O가 따르는 JEIO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경영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1989년 20여명 남짓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얼마되지 않아 경기도 김포군에 1200여 평의 대지와 250평의 공장을 갖게 되었고 좋은 설비로 좋은 제품을 양산하게 되었다. 1995년은 유난히 어려운 때가 많았으나 현재 대표이사인 김진익 집사는 담임 교역자이신 최성규 목사님의 끊임 없는 관심과 기도에도 힘입어 이제는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고 경쟁력있는 제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1990년 같이 사업을 하던 정 아브라함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사역의 길로 갔을 때는 한때 회사 경영에 있어서 힘이 겨웠으나, 정 아브라함 형제가 신학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과 발맞추어 회사도 발전했으며 정 아브라함

형제는 지금 복음음반선교회(Gospel Recordings)를 통해 네팔의 오지에서 미전도 종족의 선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 선교사가 GR 사역으로 파송받을 때의 심정을 김진익 집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정 선교사가 떠난다고 할 때 너무나 서운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수만리 떨어진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하는 이까짓 고생이야 무얼 못하겠나? 내가 너를 보내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니 무었을 하여 너와 함께 할 수 있겠나?’

부인과 13살된 딸 혜승이, 그리고 돌이 막 지난 아들 이삭을 두고 떠나는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뜸 내게 골판지로 만든 축음기의 사진이 있는 책 한권을 내밀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그들의 말로 듣게하라>(예수전도단 간)라는 것이었고, 골판지 축음기는 디스크의 공간, 시간적 제약이 많아서 카세트 녹음기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배터리를 대신할 소형발전기가 문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진익 집사는 자신이 가진 전기적, 기계적인 기술로 이것이 해결될 것 같았고, 그러한 기구에는 흥미도 있었던 터라 수동식 카세트 발전기(Generator)의 개발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아브라함 형제는 선교지로 떠났고, ARM(한국 복



음음반선교회)의 조관호 집사가 Stuart Mill 선교사(전 호주LRI 책임자)와 함께 제이오 텍을 방문했다. Stuart Mill 선교사가 만들어 온 미전도종족 음반지역을 위한 Generator를 보고 감동을 받은 김진억 사장은 가슴이 뛰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느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즉시 나귀를 보내 주었던 복있는 나귀주인의 마음이 되었던 것이다.(마 21:3)

지금 그는 기구를 실제로 사용할 선교사, 즉 사용자 입장에 서서 동작범위, 다용도성, 기구 사용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수동식 카세트 발전기를 디자인하고 있으며 미국 Gospel Recordings와의 협의로 결정이 되는 대로 곧 제작에 착수하게 되어 연간 5,000여 개의 수동식 카세트 발전기가 제이오 텍에서 생산, 전 세계의 미전도종족에게 보급되게 될 것이다.

성일정밀금형 회사의 사장 홍철 집사 또한 이에 동참할 뜻을 비춰서 이 기구에 필요한 플라스틱 몰드 금형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 놀라운 섬김에 자신을 드린 김진억 사장은 미신과 불교를 깊이 믿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대학을 다니면서 동산 간호 대학에 다니는 현재의 아내를 만나 교제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종양)을 얻은 아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병원에서

도 낮지 못한다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깨끗이 낮게 된 것이다. 이런 일 이후에도 그의 가정은 많은 혼란과 병고에 시달렸으나 오히려 불신자였던 부모님 두 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은혜에 대해 겸손히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다.

"저와 같이 아둔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과학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으로 저를 깨우치셨고 지금도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신앙이 있으나 아둔하여 행동으로 실천치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조차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가림느낌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전기, 기계, 전자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시키셨고 그 기술과 저희 회사의 설비로 오늘날 녹음기용 수동식 발전기를 만들어 주님 명령을 따라 먼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기쁨이 넘쳐 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 기쁨으로 바칩니다." ✽

중국에서 온 편지



주안의 형제 자매님들께!

할렐루야!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드디어 고통에서 헤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릴 때마다 연단을 주시는 주님임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멀리 하고 온 시내를 들쭉거리고 다니는 제가 눈썹 사나와서인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셔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데를 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저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앗아 갔습니다. 기도에 게을러졌고 모든 일에 귀찮아 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얘기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돈을 벌려고 눈이 벌겍게 돌아다닐 때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열이 39°로 올라가고 헛소리까지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바를 몰라 갈광질광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정신이 번쩍들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반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샌가 열이 싹 가라 앉았습니다. 제가 마음 속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무조건 순진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저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너는 ○○ 교회 교인으로서 중국에 왔으면 선교사이고 ○○ 선교회 간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냐"하는 목소리가 기도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할일이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소리쳐 물어 보았지만 다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19○○년 ○월 ○일에 중국에 오셔서부터 줄곧 7년 동안 중국에서 농촌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족들한테 많이 속으면서 갖은 고생을 다 겪은 분인데 지금은 A시에 계십니다. 이분

이 며칠 전에 C시에 오시면서 한족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일꾼을 꼭 붙여 달라고 기도 했는데 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닌 ○○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고 선교회에 관해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드렸더니 선교회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답니다.

현재 중국에는 70-80%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여 놀고 있으며 시골 사람들은 겨울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도박을 하고 있으며 출근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기에 할 일이 없어서 해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국을 무척 사랑하고 계셔서 한족전도집회를 하면 모인 사람 중 98~99%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한족교회 사역에 나서기로 작정했는데 선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성스러운 일에 일체를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교회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종교법으로 많은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방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그칩니다. 또 편지하겠습니다. 건강들하세요.

199×년×월×일

C시에서

이글을 쓴 자매님은 중국 조선족 교포로서 지난 몇개월간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감시 속에서도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인생을 바친 자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영적인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의 사역소식

* 멕시코 — 현재 컬리아칸 전도여행(Culiacan Outreach)가 진행중에 있다. 첫째주에 400명이 예수께 삶을 헌신했다.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 6,000개의 카세트가 새로운 수입법으로 관세를 \$4,000나 요구하여 국경에서 묶여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셔서 음반이 필요한 바로 그날 멕시코로 무사히 통과되었다.

* 방글라데시 — 데이빗 할더는 4개의 새로운 언어를 복음으로 녹음했다. 이 팀은 복음음반을 배포한 2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미얀마 국경에서 125명의 소수 부족민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했다.

* 호주지부 — 작년 한해 동안 1,600개의 카세트 재생기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조립되어 전 세계로 보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 차드 — 지난 3주간의 배포사역(Distribution) 동안 차드의 기독교 단체 전체가 배포사역에 동참했다. 30명의 사람들이 3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12개의 언어로 음반을 배포했다.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했고 1,505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0개의 선교단체가 그들에게 사역하고 있다.

* 한국

1. (주)제이오 텍에서 카세트 재생기용 수동식 휴대용발전기 생산에 헌신했다. 연간 5,000대의 발전기가 제작되어 전기나 배터리가 없는 지역에서 미전도 종족들이 자기네 토속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배포될 것이다. 설계, 제작, 배포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일에 헌신한 김진익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도록 기도하자.

2. 5월 경에 미국 GR의 조사 전략 책임자인 로스 레인지(Ross Lange)가 방한한다. 음반사역을 알리는 세미나가 개최되고 한국교회의 관심이 일어나 많은 선교헌신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이번 여름 7월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대학부 WORLD MISSION Dept. 단기전도여행팀과 Gospel Recordings와의 연합사역이 추진중이다. 마지막 때에 최소 복음화 지역에 효과적인 음반사역에의 연합과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4. 선교한국(96.8.5.~10.)에 ARM이 미전도 종족을 위한 음반사역에 대한 BOOTH를 설치하고 국내외 사역자들이 참여, 음반사역에 관한 선택강좌도 추진중이다. 선교한국을 통하여 ARM의 사역을 알리고 지원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5. 지난 1월 12일 한국에 잠시 귀국한 정 아브라함 선교사는 중국어문선교회와 온누리교회 청년해외선교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지에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음반사역을 소개하는 도전의 시간을 가졌다. ARM은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연합사역을 추구한다. 음반선교에 관심있는 교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네팔 — 1월 중 한국에 잠시 귀국했던 정 아브라함 선교사는 계속적인 사역을 위하여 네팔의 카트만두로 돌아갔다. 이후에 그는 가족과 함께 베이스를 홍콩으로 옮겨서 중국 취록여행을 위해 준비하게 될 것이다. 현재 그는 바나바 스위레스타와 함께 네팔에서 전도여행중이다. 녹음이 필요한 30개의 언어를 취록하고 있다. 이미 녹음된 94개의 언어와 방언 카세트가 잘 배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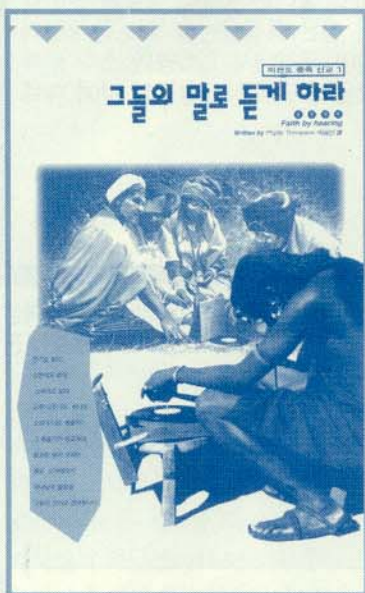
* 인도 — 알렉스와 사이빌 쇼는 1~2월 중 방갈로에서 RTC(Recordist Training Course : 취록사역자 훈련학교)를 인도했다. 훈련사역자들은 오네일, 라첼 싱크, 스티븐 무랄리, 모리스 존이다.

ARM 추천 및 신간소개

단행본

그들의 말로 듣게 하라

Faith by Hearing



전기도 없이
건전지도 없이,
스피커도 없이
오직 나뭇가지
하나로 소리가
나는 축음기!
이 축음기가 선
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마
존과 아프리카
와 아시아의 미
전도 족속을 찾
아 그들의 언어
로 하나님의 말
씀을 전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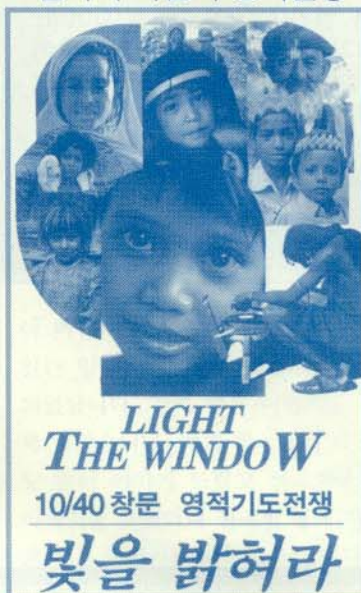
- 예수전도단
- 4,000원

조이 리더호프의 믿음과 순종의 파란만장한 모험의 일대기!

비디오

빛을 밝혀라

10/40 창문지역 중보기도를 통한
전략적 차원의 영적전쟁



10/40지역
의 수천년동안
형성된 사탄의
견고한 진! -
갓가지 우상숭
배와 성적 타
락, 그리고 극
심한 빈곤과 영
적 속박!

이 영적요새
는 어떻게 깨뜨
릴 수 있는가?
영적실체를
파헤치고 영적
대결의 원칙을
밝힌다.

- ARM 제작
- 정 본 / 28분
- 축소본 / 14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ARM(02-408-6959)으로 연
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정성준 간사)



카세트테이프

**우울증과 거절감, 자기학대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상처입
은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

현대인들은 심각한 정서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대중
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많다. 그 주된 이유는 어린 시절 그가 속했던
환경과 가족으로부터 미땅히 공급받아야 할 격려와 수용,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지적, 육적으로 어른이 된 후에도 이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확대하며 항상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내면의 고통을 당한다.

I. 자기신분회복, II. 자기성품회복, III. 자기가능성회복의 3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 오디오 테이프는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과 가능성을 회복시키고 하
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홍순관 씨의 <새의
날개>를 삽입곡으로 하여 ARM에서 제작한 <위축된 자아의 회복>은 불신자
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며 내면치유를 필요로 하
는 크리스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 기독교서점 출시 / 가격 3,000원)

복음음반선교회(ARM)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한 지체로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
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증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 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직접 증거하는데 장애가 있는 지역
을 대상으로 그들의 말로 녹음된 복음음반을 제작, 배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명이 주는 각종 첨단 장비를 사용한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